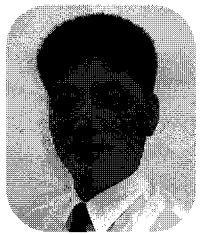




9월 지육시세는 2,450원/kg 예상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비육계열팀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6월 소비자 평가지수가 최저로 떨어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도 줄어들어 출하두수가 금년 7월에 전년동월 대비 약 13%가 줄어들었는데도 돼지가격은 매우 불안하게 형성되어 국내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도 8월 들어서 초순에는 2,500원대까지 하락하다가 2주차에는 2,800원을 보이는 등 급락과 급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경기 하락으로 공포 얼어 붙은 소비 심리가 돼지고기 소비를 감소시켜 돼지의 출하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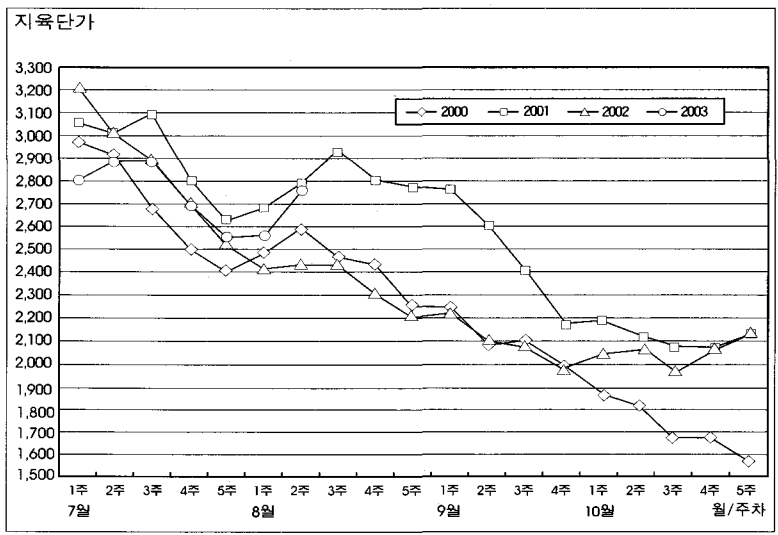
8월 첫주의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출하두수는 28,742두로써 5월의 28,000두대를

회복하고 있어서 출하 물량은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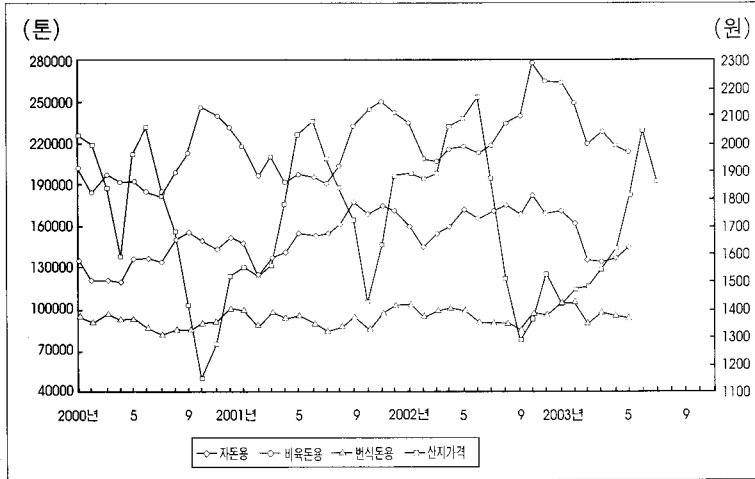
9월에도 출하두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9월 11일의 추석 전에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기 때문에 기본 소비량이 있어서 9월 초까지는 현재의 가격에서 보합 내지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석 이후에는 늘어나는 출하물량과 줄어드는 소비물량으로 인한 돼지가격의 하락은 예년과 같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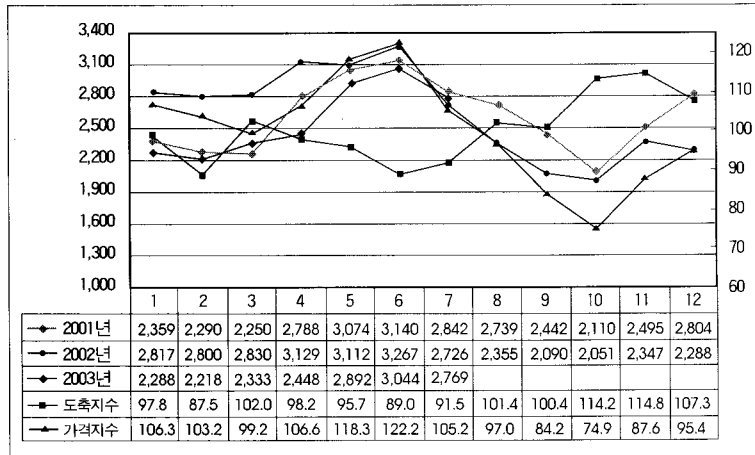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개년간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된다.

이러한 출하 물량의 증가가 예년의 추세를 보이며 늘어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로 올 3월에 발생한 돼지 열병은 많은 농장에서 자돈이 도태 매몰되었고, 이유자돈의 폐사가 증가하고, 육성돈의 성장 지연 등으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농장내 재고 두수가 늘어나 금년 6월의 가축사육두수 통계 조사에서도 사육두수가 증가한 이유라고 생각 된다.

실제 돼지 사육두수는 증가하였지만 출하 두수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 부진으로 인한 국내 수출부위 돼지고기의 재고가 증가하고, 소비 부진이 계속되면 부분육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커진 육가공 업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돼지 가격이 하락해도 자금난에 허덕여 돼지 도축물량을 늘리지 못하면 결국 도매시장 출하가 더 늘어나면서 산지 돼지가격과 주요 11개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를 매우 빠르게 하락 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 침체에 필요한 대책은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러시아 등의 돼지고기 수출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하필 이 어려운 때에 다시 발생한 돼지콜레라도 잠재적

인 돼지 가격을 하락시킬 아주 큰 요인이다. 잘못하다가는 앞친데 뒷친격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경기의 활성화나 소비촉진 대책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급속한 대책이 필요한 추석 이후의 대책으로는 적절하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03년 9월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평균 지육 단가는 상순 보합세, 하순 약세를 보이며 2,450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